

Deuteronomy Ch. 16

Verse 18

“Appoint judges and officers within all your gates, which YHWH your Elohim is giving you, according to your tribes. And they shall judge the people with righteous right-ruling.”

PaRDeS

Peshat: Moshe commands Yisrael to establish judges and officers throughout their communities so that justice is administered according to righteousness.

Remez: The “gates” can hint at the entrances through which influences enter our lives—our eyes, ears, mouth, and thoughts. These gates also require discernment and discipline.

Drash: Torah justice begins not merely with laws but with trustworthy people capable of applying them without favoritism. A righteous society requires righteous judgment.

Sod: The command to establish judges “in all your gates” points inward: a person must establish Torah as the judge at the gateways of the heart and mind, examining what is allowed to enter and what is permitted to emerge.

Energetic Flow

Gate → Discernment → Judgment → Righteousness → Shalom

What enters the gate must first pass through discernment. Proper discernment produces righteous judgment, and righteous judgment establishes order and shalom.

Meaning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지파를 따라 네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페샤트: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공동체에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워 의에 따라 공의를 시행하도록 명한다.

레메즈: “성문”은 우리의 삶에 영향이 들어오는 통로, 곧 눈과 귀와 입과 생각을 암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에도 분별력과 절제가 필요하다.

드라쉬: 토라의 정의는 단순히 법을 갖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편견 없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의로운 사회에는 의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소드: “네 모든 성문에” 재판장을 세우라는 명령은 내면을 향하기도 한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문에 토라를 재판장으로 세워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밖으로 내보낼지를 살펴야 한다.

문 → 분별 → 판단 → 공의 → 샬롬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먼저 분별을 거쳐야 한다. 올바른 분별은 의로운 판단을 낳고, 의로운 판단은 질서와 샬롬을 세운다.

Torah does not envision holiness only in the sanctuary. Holiness must enter the courts, city gates, leadership structures, and ordinary relationships of the community. YHWH's people are to build justice into the structure of everyday life.

토라는 거룩함을 성소 안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거룩함은 재판정과 성문과 지도 체계와 공동체의 일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야훼의 백성은 일상의 구조 속에 공의를 세워야 한다.

Mussar

Before judging others, establish a judge at your own gates. Examine what you watch, what you listen to, what you say, and what you allow to shape your thoughts.

Spiritual discipline means learning to pause at the gate and ask: **“Is this consistent with the Torah of YHWH?”**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에 재판장을 세우라.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이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도록 허용하는지를 살펴보라.

영적 훈련이란 문 앞에서 멈추어 **“이것이 야훼의 토라와 일치하는가?”**라고 묻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Verse 19

“Do not distort right-ruling. Do not show partiality, nor take a bribe, for a bribe blinds the eyes of the wise and twists the words of the righteous.”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PaRDeS

Peshat: Judges must neither distort justice, favor individuals, nor accept bribes because these corrupt impartial judgment.

페샤트: 재판장은 재판을 굽게 하거나 사람을 편애하거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은 공정한 판단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다.

Remez: A bribe represents anything that secretly influences judgment—money, friendship, anger, reputation, fear, or personal advantage.

레메즈: 뇌물은 판단에 은밀히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다. 돈, 우정, 분노, 명성, 두려움, 개인적인 이익도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Drash: Torah warns that even the **wise** can become blind. Knowledge alone does not protect a person from bias. Character must guard wisdom.

드라쉬: 토라는 심지어 **지혜로운 자**도 눈이 멀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식만으로는 편견에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 인격이 지혜를 지켜야 한다.

Sod: Corruption begins when desire alters perception. Once the inner eye is distorted, a person may sincerely believe that crookedness is straight.

소드: 부패는 욕망이 인식을 변화시킬 때 시작된다. 내면의 눈이 왜곡되면 사람은 굽은 것을 곧은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게 될 수도 있다.

Energetic Flow

Personal Interest → Distorted Vision → Distorted Words → Distorted Justice

개인적 이해관계 → 왜곡된 시야 → 왜곡된 말 → 왜곡된 정의

The Torah traces corruption backward: unjust actions often begin with compromised vision.

토라는 부패의 과정을 거슬러 보여 준다. 불의한 행동은 종종 이미 타협된 시각에서 시작된다.

Meaning

YHWH demands more than technically correct decisions. The process itself must remain pure. Justice becomes corrupted whenever personal benefit determines how truth is perceived.

야훼께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옳은 판결 이상을 요구하신다. 그 과정 자체가 순결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이 진리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할 때 정의는 부패한다.

Mussar

Ask not only, **“Am I correct?”** but also, **“What might be influencing me to see the matter this way?”**

단지 **“내가 옳은가?”**라고만 묻지 말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렇게 보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물으라.

Wisdom requires continual examination of our motives.

지혜에는 자신의 동기를 끊임없이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Follow righteousness, righteousness, so that you live and inherit the land which YHWH your Elohim is giving you.”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PaRDeS

Peshat: Yisrael must pursue righteousness so that the nation may live securely in the land YHWH gives them.

페샤트: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굳게 서기 위하여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

Remez: The repetition **צֶדֶק צֶדֶק** — *tzedek, tzedek* emphasizes persistence. Righteousness is not merely admired; it must be pursued.

레메즈: **צֶדֶק צֶדֶק** — *체데크, 체데크*라는 반복은 지속적인 추구를 강조한다. 공의는 단순히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Drash: The repetition can teach that both the **goal and the means** must be righteous. One cannot establish righteousness through unrighteous methods.

드라쉬: 이 반복은 **목적과 수단**이 모두 의로워야 함을 가르칠 수 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의를 세울 수 없다.

Sod: *Tzedek* reflects divine order. Pursuing righteousness means bringing human relationships into harmony with the righteous order established by YHWH.

소드: *체데크*는 신적 질서를 반영한다. 공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야훼께서 세우신 의로운 질서와 조화시키는 것이다.

Energetic Flow

צֶדֶק → Pursuit → Life → Inheritance

צֶדֶק → 추구 → 생명 → 기업

Righteousness is not passive. Torah says **תִּרְדּוּף** (*tirdof*) — “**you shall pursue.**” Yisrael must actively run after what is right.

공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토라는 **תִּרְדּוּף** (*티르도프*) — “너는 추구하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좇아야 한다.

Meaning

צֶדֶק צֶדֶק תִּרְדּוּף — *Tzedek, tzedek tirdof* is one of Torah's great statements about communal life: “**Righteousness, righteousness you shall pursue.**” Possessing the land is connected with becoming the

צֶדֶק צֶדֶק תִּרְדּוּף — *체데크, 체데크 티르도프*는 공동체의 삶에 관한 토라의 위대한 선언 가운데 하나이다. “**공의, 공의를 너는 추구하라.**” 땅을

kind of people who administer it according to YHWH's righteousness.

소유하는 것은 그 땅을 야훼의 공의에 따라 다스리는 백성이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Mussar

Do not merely avoid injustice. **Pursue righteousness.** Look for opportunities to restore fairness, defend truth, reconcile relationships, and treat others rightly.

단지 불의를 피하는 데 그치지 말라. **공의를 추구하라.** 공정을 회복하고 진리를 지키며 관계를 화해시키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할 기회를 찾으라.

Verse 21

“Do not plant for yourself any tree as an Asherah near the slaughter-place of YHWH your Elohim that you make for yourself.”

“네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네가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PaRDeS

Peshat: Yisrael must not introduce an Asherah or pagan cultic object beside the altar of YHWH.

페샤트: 이스라엘은 야훼의 제단 곁에 아세라나 이방 종교의 숭배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

Remez: Something may stand physically close to worship while spiritually opposing it. Proximity to holiness does not make something holy.

레메즈: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예배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다. 거룩한 것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Drash: YHWH is not to be worshiped by blending His commandments with practices borrowed from idolatry.

드라쉬: 야훼를 섬기는 일은 그분의 계명과 우상숭배에서 가져온 관습을 혼합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Sod: The altar represents complete devotion to YHWH. The Asherah beside the altar represents divided allegiance—outward worship accompanied by inward attachment to another source.

소드: 제단은 야훼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나타낸다. 제단 곁의 아세라는 나뉜 충성, 곧 겉으로는 야훼를 섬기면서 내면으로는 다른 것에 붙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Energetic Flow

Mixture → Divided Allegiance → Corrupted Worship

Torah protects the altar by establishing boundaries around worship.

Meaning

The placement of this command immediately after the laws of justice is significant. Israel's public justice and Israel's worship both require purity. Corruption must not enter either the courtroom or the altar.

Mussar

Examine what has been planted **beside the altar** of your life. Something can appear harmless yet slowly compete with devotion to YHWH.

혼합 → 나뉜 충성 → 부패한 예배

토라는 예배 주위에 경계를 세움으로써 제단을 보호한다.

이 명령이 공의에 관한 법 바로 뒤에 놓인 것은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의 공적 정의와 이스라엘의 예배 모두 순결해야 한다. 부패는 재판정에도 제단에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삶의 **제단 곁에** 무엇이 심겨 있는지를 살펴보라. 겉으로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것도 점차 야훼께 드리는 헌신과 경쟁할 수 있다.

Verse 22

“And do not set up a pillar, which YHWH your Elohim hates.”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미워하시느니라.”

PaRDeS

Peshat: Yisrael is forbidden to erect a cultic pillar associated with forbidden worship.

페샤트: 이스라엘은 금지된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주상을 세워서는 안 된다.

Remez: Worship is determined by what YHWH desires, not simply by what human beings find impressive or meaningful.

레메즈: 예배는 인간이 인상적이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원하시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Drash: Sincerity alone does not sanctify a practice. Covenant obedience asks, “**What has YHWH commanded?**”

드라쉬: 진실한 마음만으로 어떤 행위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언약의 순종은 **“야훼께서 무엇을 명하셨는가?”**라고 묻는다.

Sod: The forbidden pillar represents human attempts to give permanent form to something YHWH has rejected. True holiness submits even religious imagination to divine instruction.

소드: 금지된 주상은 야훼께서 거부하신 것에 인간이 영속적인 형태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참된 거룩함은 종교적 상상력까지도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복종시킨다.

Energetic Flow

Human Preference → Religious Innovation → Mixture → Separation from YHWH's Order

인간의 선호 → 종교적 창안 → 혼합 → 야훼의 질서에서 벗어남

Meaning

Deuteronomy 16 closes with a powerful connection between **justice and worship**. Yisrael must neither distort justice in the gates nor distort worship at the altar. Both belong under the authority of YHWH.

신명기 16 장은 **공의와 예배**를 강력하게 연결하며 끝난다. 이스라엘은 성문에서 공의를 왜곡해서도 안 되고 제단에서 예배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 둘 모두 야훼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Mussar

The same question governs both judgment and worship: **Am I ordering my life according to YHWH's instruction, or according to my own preference?**

판단과 예배 모두를 다스리는 질문은 동일하다. 나는 내 삶을 야훼의 가르침에 따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세우고 있는가?

Flow of Verse 18–22

Guard the gates → Judge righteously → Remove bias → Pursue righteousness → Guard the altar → Reject mixture.

문을 지키라 → 의롭게 판단하라 → 편견을 제거하라 → 공의를 추구하라 → 제단을 지키라 → 혼합을 거부하라.

The passage begins with **שֹׁפְטִים** (*shofetim*, judges) at the gates and ends with purity at the altar. Torah therefore joins what people sometimes separate: **how we treat people and how we worship YHWH**. Righteousness must govern both.

이 본문은 성문의 ****שֹׁפְטִים** (쇼프티మ్, 재판장들)**으로 시작하여 제단의 순결함으로 끝난다. 따라서 토라는 사람들이 때때로 분리하는 두 가지, 곧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야훼를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하나로 연결한다. 공의가 이 둘 모두를 다스려야 한다.

